

# 元老科學技術者의 證言

4

## 水産資源 처음 조사 政策樹立에 反映



정 문 기 博士

### 鄭 文 基 博士篇

〈下〉

#### ◎ 물고기 繁殖保護法 研究

1929年 東京帝大를 卒業하고 귀국한 나는 바로 總督府 水産業課 養殖係長으로 발령을받았다. 당시 만해도 갓 大學을 卒業한 우리나라 사람이 總督府 係長으로 발령된다는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내가 그와같이 어려운 關門에 들어 서게 된것은 東京帝大 前總長 야마가와씨의 특별배려에서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내가 보직받고 얼마후 알게되었는데 『나를 정책적으로라도 등용시켜야 總督府는 다음에 말할수있는 계기가 마련될것』이라는 야마가와씨의 조언이 받아들여져 養殖係長자리가 주어졌다한다. 그러니까 나는 東京帝大 水産科卒業生 대우를 톡톡히 받은 셈이다.

그러나 내가 總督府에 들어가보니 그곳에서도 한국사람에 대한 차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가업무등 중요한 사무는 모두 日本人이 맡아하고 내게는 일반사무만 취급케했다.

그래서 나는 日本人들의 그러한 처사에 별로 개의치 않고 물고기繁殖保護에 대한 法律制定 업무에만 전념했다.

이러기를 滿9年——, 전국 각 水産試驗場에서 연구하여 보내진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근해의 물고기 생태를 관찰하고 연구하여 크기에 따라 잡는 시기를 규정하는 소위 물고기繁殖保護法을 만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가 9년간 總督府에 있으면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서 받은 비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養殖係長으로 있는지 2년째 되던해 이다. 局長으로부터 지방郡守로 나가달라는 勸勉이 왔다. 날더러 郡守를 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당시 總督府정책이 우리나라사람에게는 技師를 시키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를 몰아내기위한 한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점을 미리알고 그의 제안을 싫다고 거절해버렸다.

그런데도 그 日本人局長은 定例行事 처럼 매년 그맘때면 나를 불러 郡守로 나갈것을 종용했다.내가 일곱번을 거절하고 여덟번째 郡守종용을 받을때이다. 그 局長은 내게 마지막 기회라며 『어느 道이건 당신마음대로 결정하고 희망하는 지역 郡守로

☆ 特別企劃 ☆

나가라』했다.

그때 나는 그같은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 버리자 日人局長은 그 이유를 말하라했다.

나는 대답하기를 『첫째 郡守로 나가려면 法科나 行政科 출신으로 考問에 패스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하지 못하고 둘째 많은 우리나라사람이 考問을 패스하고도 郡守로 못나가 기다리고 있으며 셋째 나의 전공이 水産이므로 시종일관 水産技術을 연구하다 늙어 죽을 결심을 했다』고 했다.

내 말을 다 들은 局長은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제서야 總督府방침을 내게 들려 주었다. 그는 『우리나라사람에게는 技師를 시켜서는 않된다는 總督府방침이 서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技手로 있어도 되겠느냐』며 다시 한번 회유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인지라 조금도 놀란기색을 보이지않고 總督府정책이 그렇다면 技手로 늙어죽어도 하는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도 『당신의 신념을 이제 알았다』며 『앞으로 技師 자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주겠으니 그렇게 알라』했다. 이런 일이 있은지 몇달 안돼 나는 平安北道 水産試驗場長으로 발령받았다.

이해가 1939년—— 나는 이곳에서도 6년간 재직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물고기연구에 더욱 열을 올렸다. 鴨綠江 상류를 비롯 鴨綠江지류인 厚昌·慈城까지 찾아가서 물고기의 생태와 산란에 관한 연구를했다.

또 鴨綠江을 國境으로한 그곳에선 우리나라와 中國間에 漁業問題가 많이 發生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모두 해결했다.

그당시 중국 高船과 漁船 3백여척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들이 싣고온 阿片으로 金이나 물고기를 사가지고 滿州로 건너가곤 했다.

나는 이런일을 중시하고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入港을 중지시켰다.

이러자 그들로부터 한때는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큰 마찰없이 무사히 해결시켰다. 그후 나는 滿州事變 기운이 일고 있을무렵 仁川으로전근이되어 그곳서 1년간 있다가 다시 木浦水産試驗場長으로 전근, 여기서 해방을 맞이했다.

◎ 解放以前의 우리나라水産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전의 우리나라 水産業은 일본사람이 좌지우지했다.

그당시 어선으로는 정어리전창망과 기선저인망이 최고—— 이때 한척만 가지고 있으면 당시 1천석 이상의 지주보다 낮게 생각했었다. 그런자 하면 선주는 서울의 어느 여관이나 요리집에 가져도 명함한장으로 무상출입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들 선주는 거의 일본인들이었다. 우리나라사람으로는 고작 3, 4명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함경도에 한명, 강원도에 한명, 경상도에 한명, ... 이같은 분산 허가는 모두 日本總督府의 政策이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정어리—— 동해에서만도 1년에 120만톤의 정어리가 잡혔으니 이는 해방직후 남북한 전체어획고와 맞먹는 수량이다.

맛이 풍부하고 신선도가 높은 정어리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통조림으로 만들어수출을하고도 남아돌아 친시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사람이시골에 내려가 정어리 요리를 요구하면 어떻게정어리요리를 출수있느냐며 주기를 꺼려하기도……

하여튼 日帝는 이같이 많이 잡히는 정어리로 수출용 통조림외에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하는가하면 그래도 남아돌아가 軍艦油 30~40% 를 충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쟁말기에 그렇게 흥청망청하던 정어리가 잡히지않았다.

여기서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것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정어리 생태이다.

이들은 새끼를 낳기위해 동해안에 들어 오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단지 먹이를 위해 들어오고 새끼는 日本九州 남쪽에서 낳는다. 그새끼가 北海島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크게되면 다시 산지로 돌아온후 현해탄을 거쳐 우리나라 동해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히던 정어리가 갑자기 없어진 원인은 이들 통로에 赤潮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독소가 있는 赤潮가 2, 3년이나 생

졌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日人들은 수억대의 돈을 들여 정어리때를 찾았으나 전쟁에 패할때까지 결국 못찾고 말았다.

## ◎ 釜山水產大學의 再建

木浦水產試驗場長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아 나는 얼마간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이럴지음 하루는 美軍政廳 고문으로 있던 金俊淵 씨로부터 곧 上京하라는 전보를 보내왔다.

나는 그같은 전보를 받고도 해방 바로 직후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빨리 상경하라는 전보가 왔다. 더이상 망설일수가 없어 하는수 없이 상경한 나는 金俊淵씨 안내로 중앙청에 들어가 軍政長官을 만났다.

내소개가 끝나자마자 손을 내민 軍政長官은 악수하던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軍政廳水產顧問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軍政廳 발령이 너무 간단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水產顧問으로 임명받은 그 이튿날이었다.

軍政廳 文教顧問으로 계신 仁村 김성수선생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나는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곧 仁村에게 갔다. 仁村은 나를 보자 반가히 하며 『임자가 釜山水山大學을 접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말을 들은 나는 『仁村선생의 말씀이라면 다들겠으나 바로 어제 水產顧問으로 임명받은 처지인지라 나로서는 단안 내리기가 곤란하다』며 『軍政長官과 상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仁村은 내말을 듣고 군정장관을 찾아가 내문제를 협의했으나 타협을 못하고 다시 나를 찾아와 『釜山水產大學長이 될만한 사람을 추천하라』했다.

나는 비로소 金양하博士를 추천했다. 내가 金양하博士를 추천하자 仁村의 얼굴엔 무언지 석연치 않은 빛이 보였다.

仁村말이 『金양하씨라면 서울공대학장으로 보내야지 하필이면 釜山水產大學長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않느냐』 했다.

그리고 仁村은 金양하씨가 일을하다 실수하면 책임을 질수 있느냐』고 했다. 결국 金양하博士가 釜

山水產大學長 臨時署理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후에야 알게된 것이지만 그때 仁村은 釜山水產大學長 적임자를 물색하기위해 학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조사했으며 따라서 金양하씨도 알아볼대로 알아본터이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仁村의 이런 의중도 읽지 못하고 추천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金양하씨를 나와 동창이란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仁村은 그의 사생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水產大學이라고해야 제조학, 증식학, 어류학등 세가지뿐이어서 水產製造學을한 金양하博士라면 釜山水產大學의 기초를 충분히 잡을수 있을것이란 판단이 서기에 추천했던 것이다.

그런데 金양하博士가 釜山水產大學長으로 부임한지 3개월 남짓 되었을 때이다.

仁村이 전화로 나를 급히 오라해서 찾아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仁村은 『임자가 추천한 金양하씨가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약속대로 책임을 질것인가』고 못기에 나는 잠자다 날벼락을 맞은격 이어서 놀라지 아니할수 없었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내 머리속은 착잡하기만했다. 나는 이제 어쩔수 없이 釜山水產大學長職을 떠맡게 된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仁村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털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學長으로 내려가 釜山水產大學을 再建하자면 仁村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했다. 첫째 현 교수진을 백지로 환원해서 재임명하고 둘째 金양하博士를 석방할 것이며 셋째 좌익계 불은 벽보를 붙이다 구속된 학생들까지 석방시켜 내가 가르쳐도 안들올때 다시 구속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같이 나의 세가지 요구를 다 듣고난 仁村은 『모두 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仁村의 그같은 약속을 받고 釜山에 내려간 나는 경찰서에 가서 金博士와 학생들 그리고 署長을 만나 보았다. 金博士의 辭表는 경찰서장이 이미 받아 놓고 있었다.

그리고 仁村이 약속한 내 요구조건은 내가 부산

에 내려간지 며칠안돼 모두 간단히 해결되었다.

나는 그때 몇일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일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1947년 釜山水產大學長으로 정식 취임했던 것이다.

나는 취임하자 마자 전 교수를 재임명하고 극열 좌익학생들도 모두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재임명 받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말에 따를것을 다짐받고 새출발을 했다.

마치 황무지와 같은 釜山水產大 再建에만 몰두하고 있을 무렵 軍政廳農林顧問으로 있다가 農林長官이된 李勳求博士가 나를 찾아왔다.

나와 李勳求長官은 釜山水產大學 시찰을 마치고 그의 요청에 따라 배를타고 多島海 구경에 나섰다. 그런데 李장관은 배안에서 내게 『자기 밑에 와 水產局長을 맡아 도와주는게 어떠냐』고 하지 않는가——

이말을 들은 나는 『水產局長이되면 李長官에게 내발로 걸어가서 결재를 맡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하자 그는 다시 『水產業務만은 美國式으로 局長專決로 하겠으니 꼭 맡아주고 學長과 兼職도 무방하다』 했다. 李장관의 간청이 그러한데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 승락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 水產局長에 취임했다.

나는 水產局長 자리에 앉자 마자 실습선·어선 통조림공장, 한천공장, 대구어장등을 釜山水產大學 앞으로 拂下 시켰다.

이것이 내가 水產局長이 되고 손을댄 첫작업이었다. 또 나는 釜山水產大學재건을 하자면 어렵잡아 약 3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도 水產協同組合 全國總大會가 열렸다. 나는 이때다 하고 總大會에 참석하여 組合長들에게 부산어시장을 비롯 전국어시장 판매고의 1%를 공제, 이를 釜山水產大學재건기금으로 하자고 건의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나의 건의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첫해모인 기금이 5천여만원이 되어 그 일부로 水產大 기숙사를 먼저 지어주었다. 그후도 많은 기금이 모아진것으로 안다.

그다음 水產局長으로 있으면서 해놓은 일중의 또 하나는 敵產漁場 처리다.

8. 15해방이되자 일본사람이 소유하고 있던수

많은 우리나라 漁場이 모두 敵產으로 되었다. 이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敵產漁場을 얻기 위해 美軍政廳 顧問등을 찾아다니며 한창 運動을 벌이고 있을 무렵 李勳求농림장관이 나를 찾아와 水產漁場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고 걱정했다.

나는 李長官에게 『따로 복안이 있으므로 3개월만 여유를 주라』고 했다.

敵產漁場處理案을 만들며 생각해본것이지만 이 수많은 어장을 1件씩 처리했다가는적어도 2~3년이 걸릴것 같고 또 이를 얻기 위해 벌이는 한사람의 운동비만을 줄잡아 10억원이 들것 같았다.

이래서 나는 오래끝면 끝수록 좋지못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판단하고 서둘러 處理案을 만들어 軍政長官에게 제출했다.

그때 내가 만든 敵產漁場處理案은 종이 한장에 불과했는데 다음은 그 내용이다.

『敵產漁場을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그대로 관리하라.

만약 法的으로 필요할때는 우리나라 새政府가 樹立된후 水產業法이 制定되면 그 水產業法에 따라 處分된다.』

대충 이러한 내용의 處理案을 읽어본 軍政長官은 軍政水產政策으로는 매우 훌륭한 것이라며 그 자리서 싸인하고 軍政令으로 공포했다.

이 軍政令으로 하여금 초안을한 나는 일부인사들로부터 원망도 샀다.

특히 農林部 직원 몇사람은 數件씩 말아 돌아다녔으니 나에게대한 원망은 과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나는 소수로부터 원망은 샀으나 전체에 미치는 혼란을 미리 방지한 셈이다.

또한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水產局長으로 있을때 日本 주둔 스캠(SCAP)에서 美國人 水產局長 헤링턴씨가 우리나라에 왔다.

日本人들이 그를 얼마나 구워 살마 놓았는지 일본사람들을 우리나라 西海에 와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내 책상위에 바둑판같이 그린 西海地圖를 내보이며 한바둑판안에 있는 수산자원의 수량을 낚날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하면 수천개의 바둑판에 (西海)에는 물고기가 무진장 있으므로 일본사람에

게 조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다듣고나니 日本人들의 教唆을받고은 그가 꽤섬하기 까지했다.

그래서 나는 헤링턴씨에게 『당신도 水産大學을 나왔느냐』며 쏘아붙이고 『당신이 내놓은 數値는 日本사람이 計算한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헤링턴씨가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나는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헤링턴씨는 깜짝 놀라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들려주기를 『우리나라 水産資源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더우기 日人들이 36년간 다 잡아먹어 그렇게 많던 정어리까지 고갈상태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전쟁중에 번식된것이 조금 있을 뿐인데 日人들이 計算한 數値를 당신이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면 水産局長資格이 없다』고 했다.

이때 나는 數字的인 데이터까지 제시해 주었으므로 그는 내말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

헤링턴씨는 내말이 끝나자 『동의한다』며 『다시는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 ◎ 우리나라 水産資源量 조사

나는 水産局長을 거쳐 企劃廳으로 전보되어 그곳서 水産企劃을 맡고 있다가 다시 水産試驗場을 접수하게 되었다.

그곳은 政府樹立전이라 그때까지도 일본인들을 추방하지않고 촉탁 기술자로 남게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중엔 日本東京帝本 나의 선배학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가 試驗場長으로 부임하자 누구보다도 반가히 맞아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환대에 휩쓸릴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우선 政府가 水産政策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을 서둘렀다.

나는 곧 그들을 불러놓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

라 水産資源量을 조사하여 학술적으로 풀어서 제출하라』고 했다.

日本人 試驗場長까지 東大 선배였는데 갑자기 내 지시가 있자 그들은 모두 당황한 얼굴빛을하며 『현재 조사된것으로는 5~6種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까지 조사된것이 겨우 5~6種뿐이라니 말이다. 나는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그들이 알고있는 종류부터 조사하라고 했다.

이때부터 나와 그들이 우리나라의 水産資源量을 조사한 기간은 약 두달—— 이 資料가 그후 우리나라 水産政策樹立에 참고가 된 것이다.

내가 水産試驗場長으로 있을때가 1947년이었으니가 정확히 34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쉬움이 한가지 있다.

물론 당시는 日人에 대한 감정이 높아 무슨짓을 해도시원치 않은 상태이긴 하나 技術者만은 다른 차원에서 다뤘으면 했다.

水産試驗場만 하더라도 日人技術者가 많았는데 그들이 오래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것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쫓아버렸다. 日本人인 前試驗場長도 집안일로 잠시 日本에 건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 시모노세키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가 부산에 출장가고 없는사이 우리나라사람 次席이 『안와도 된다』고 말해버려 그는 영영 돌아오지않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나머지 사람도 하나둘 가버렸다.

技術의 引繼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그때 그들을 좀더 옆에 두고 水産技術을 배워야 했었던 것이다.

즉 이것은 요즘 외국기술자를 많은 돈을 주고 초빙하는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것이다.

(정리·차준진)